

왕실에 들어간 권문(權門)의 여인들



궁중연희



태종왕후



정혜옹주 사리함(수종사)

고려개국 후 고려 중·후기 10세에 이르기까지 권문에는 별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다가 여말에 추밀공과 권수평(權守平, 1180~1250), 권수홍(權守洪) 형제가 항리에서 상경하여 권수평은 개성 인근 장단에 권수홍은 경기 남부에 정착하고 중앙관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. 이후 다른 계파도 상경하여 차관급의 중앙관직에 오른다. 고려 말 당대 9봉군의 위업을 이룬 권보(權溥)와 아들 권준, 권고, 권후, 권경 등은 고려 말 권신이고 14세 권준의 아들 권형(權衡)의 딸이 충숙왕의 후비 수비(周密公妃 16세, ?~1340)이다. 원래 전신(全信)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이혼하고 수비(壽妃)가 되고 후일 천하의 탕아 중혜왕은 아버지의 후궁인 수비와 蒸淫한 바도 있다고 한다. 그리고 권보의 막내 권경의 딸 권씨는 원나라 원순제와 기황후의 아들인 북원(北元)의 소종의 황비(추밀공파 15세)가 되지만 명나라에 쫓기다가 순절했다고 한다.